

# 노조는 조합비 인상... 회사는 별도 '보전수당' 지급

## 기아차 노사 '타임오프제' 눈가리고 아웅

### 사측 "편법지원 아닌 현대차와의 임금격차 해소 차원"

기아자동차 노·사가 최근 '노조 조합비' 인상 관련 사측이 별도의 '보전수당'을 지급해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제도) 제 시행을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기아차 광주공장 노조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 광명 소하리공장에서 대의원대회를 열어 통상임금의 1.2%(1인당 월평균 2만3000여원)를 건너 조합비에 1인당 1만4200원씩을 일률적으로 추가

인상하는 '조합비 인상 규약'을 가결했다.

이는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제도)제 시행에 따라 생긴 무급 전임자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기아차 노조는 3만여명의 조합원들로부터 1년에 50여억원의 조합비를 더 걷을 수 있게 됐다. 노조는 또 자체 운영비를 월 2000만원 이상 인준해 이를 무급 전임자 급여에 보태기로 했다.

기아차 노사는 지난 9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204명의 노조 전임자 수를 유급 21명과 무급 70명으로 줄이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번 조합비 인상에 앞서 기아차 노사는 임금에 '보전수당'을 신설, 1만5000원씩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어 노조 무급 전임자들의 급여를 지원하는 편법 지원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보전수당'은 현대차와의 임금 격차를 줄인다는 명목으로 새로 추가됐다.

지역 경제계 인사는 "기존에 없던 수당을 새로 만들어 그 액수만큼 조합비를 인

상한 것은 사측이 무급 전임자들의 급여를 편법 지원한 것"이라며 "대규모 사업장에서 이같은 이면 합의가 이뤄진다면 타임오프제는 무력화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아차는 "올해 임단협에서 노사 합의로 신설한 '보전수당'은 현대차와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것"이라며 "조합원 뿐만 아니라 비조합원에게도 일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를 두고 조합비 편법 지원이라고 보는 시각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현금서비스보단 카드론"

#### 금리 낮아 이용실적 증가

소비자들이 현금서비스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의 카드론을 선호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10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카드론 이용실적은 11조3천억원에 달해 카드 대란이 발생한 2003년(19조6000억원)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도 무려 42% 증가한 것이다. 카드론 이용실적은 상반기 기준 2002년 19조원에서 2005년 3조3000억원으로 저점을 찍고 나서 증가세를 이어왔다. 반면 현금서비스 이용실적은 40조16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 줄어드는 등 2003년 상반기 140조원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 주간 증시 포커스

#### 종목별 변동성 확대 전망

#### 철저한 검증후 대응해야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유지되면서 코스피지수를 비롯한 글로벌 증시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당초 단기 급등에 따른 단기 조정 가능성도 염두에 뒀지만 예상치 못한 일본의 양적 완화 불 지르기로 인하여 미국 유동성 확대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공고해졌다.

다만, 코스피 지수와 미국 주요지수 모두 저항에 직면해 있고,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으로 시장 내외 변수의 장세 민감도가 확대되고, 차익 실현 욕구도 증가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지수 변동성은 전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지수의 방향성을 떠나서 장세 대응이 갈수록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주는 선진국 양적 완화와 더불어 중국 변수도 글로벌 증시에 영향력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10월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국 공산당 제17차 당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는 내년부터 시작되는 제12차 5개년 계획(2011년~2015년)의 기본방향과 경제 발전 방식의 전환 등을 논의 및 결정할 예정인데, 내수 확대, 소득증대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양적 완화와 중국의 소비 확대에 대한 기대가 긍정적인 요소라면, 최근 환율 전쟁에 따른 EU(유럽 연합)의 경제 가능성 증가는 장세에 부담 요인이다. 특히 지난 2분기 EU의 성장률이 상당부분 유효와 약세에 의한 독일의 수출 증가에 기인했었는데, 최근의 흐름처럼 유효와 강세 현상이 지속될 경우 그렇지 않아도 취약한 EU경제에 대한 우려가 고개를 들 수 있다는 점에서 EU 그중에서도 독일의 반격 가능성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는 시기로 보인다.

한편, 이번 주는 내부 변수에도 신경 써야 하는데,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결정과 3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대비가 그것이다. 우선 금리는 인상 가능성에 무게를 두지만, 인상 전망에 대해 시장이 어느 정도 각오하고 있어 불확실성 해소 차원으로 해석될 전망이다.

실적 시즌을 맞이해서는 종목별 변동성 확대가 커질 전망이다. 몇몇 종목은 기대와 유동성을 바탕으로 다소 속도위반 가능성도 의심되는 만큼, 추가 수준에 비해 실적이 미치지 못할 경우 자칫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일부 중대형주의 이유 없는 주가 하락은 특정 종목을 제외하곤 실적 부진 가능성을 의심해 볼만하다. 종목별 대응에 대한 시각이 여전히 고지수 전망도 긍정적이지만 아무 종목이나 합부로 손대기보다는 보다 철저한 검증 후 대응의 원칙을 고수할 필요가 있다.

금리 인상 전까지는 보험과 은행주에 대해서 단기적인 대응이 가능할 전망이다. 며칠, 증선주에 대한 대응 시각은 여전히 유효하다. /jpark@goodi.com



박종모 <신한금융투자 광주지점장>

### 전세계 첨단 친환경기술 한눈에...

#### '2010 국제기후환경산업전' 27~30일 DJ센터

"2010 국제기후환경산업전"이 오는 27일부터 4일간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총 10개국 160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열린다.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들이 400개 부스를 설치해 첨단 환경기술과 최신 경향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전시에 참가하는 포스코의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최근 3년 평균보다 9% 줄이기 위해 2020년까지 약 1조5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으며, GS칼텍스는 탄소소재, 연료전지, 수소 스테이션, 박막전지 등 녹색기술 분야와 태양광 주유소·친환경 셀프주유소 모델을 선보일 예정이다. 금호타이어는 타이어의 회전저항을 줄여 연비를 개선한 친환경 타이어 '에코원'을, 전남대바이오테크놀로지사업단은 지난해 대통령상을 수상한 '인슈블럭'을 사용한 친환경 모델주박을 최초로 공개한다.

전국의 기상정보를 수집해 각종 데이터를 제공하는 기상콘텐츠업체 '웨더링크', 국내 최초로 굴뚝에서 나오는 다이옥신과 VOC(휘발성유기화합물)를 분석한 대기전문회사 KNJ엔지니어링(주), 무인자동차 바이오 디젤 제조기를 개발한 그린바이오기술(주)과 가축분뇨로 시간당 54kw의 전력을 생산하는 (주)정림 등 선도기업들도 이번 산업전을 찾았다.

이외에도 150년 역사의 프랑스의 베를리타 등 9개국 32개 친환경 해외업체도 참가하기로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산업전은 국내의 친환경기업들의 첨단기술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장"이라며 "관련업계는 물론 일반시민들도 기후변화의 시대의 친환경기술들을 매우 흥미롭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석기자 chadol@kwangju.co.kr

### 저축은행 대출 금리

#### 비교공시서비스 실시

금융감독원은 10일 전국 105개 저축은행의 대출금리 비교공시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www.fsb.or.kr)를 통해 제공되며, 대출 상품을 부동산담보대출, 신용대출로 구분해 상품별 금리 및 기간 등 거래조건이 월 1회 정기 공시된다.

오는 12일부터 2주가량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10월말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연합뉴스



### "트렌치코트로 남자의 계절 만끽"

10일 롯데백화점 광주점(점장 고평후) 남성복 매장 직원들이 쌀쌀한 가을 날씨에 어울리는 트렌치코트를 선보이고 있다. 올해는 클래식한 디자인에 방수·방풍 등의 기능을 강화한 '테크' 트렌치코트가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 최저신용총엔 대출난 해소 '머나먼 길'

### 9~10등급 햇살론·미소금융 대출실적 미흡

정부가 서민전용 대출상품으로 내놓은 햇살론과 미소금융이 최저 신용층의 대출난을 해소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소금융은 상담 후 서류 접수까지 간 사람이 열 명 중 한 명도 되지 않을 정도로 대출받기가 쉽지 않았다. 10일 금융위가 국회 정무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미소금융 대출실적은 지난달 10일까지 2918명, 254억8400만원이었다.

대출인원 기준으로 신용등급별로는 7등급이 1295명으로 절반 가량인 44.4%를 차지했고, 8등급이 899명으로 30.8%였다. 반면 최저 신용층이라 할 수 있는 9등급자는 369명으로 12.6%, 10등급자는 159명으로 5.4%였다. 금리수준을 보면 1938명이 연 4.5%, 970명은 2%의 금리로 대출을 받았으며, 1%와 4% 금리로 대출을 받은 사람도 각각 5명이었다. /연합뉴스

미소금융 심사 탈락률도 높았다. 8월16일 현재 미소금융 대출상담을 받은 사람 3만 7570명 중 서류 접수까지 이어진 사람은 7.7%인 2878명에 불과했다. 또 서류를 접수시킨 후 대출을 받은 사람은 269명이고, 심사가 진행중인 사람은 276명이었다.

서류 접수자의 18.5%인 533명은 심사 과정에서 탈락했다. 햇살론의 경우 지난 달 15일 현재 8만9859명에 대해 8223억원의 대출이 이뤄진 가운데 9등급자는 3067명으로 3.4%, 10등급자는 667명으로 0.7%에 불과했다. /연합뉴스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특별정 서비스표등록 제41-0187289

**고품격 메뉴, 건강한 맛, 품격있는 서비스 (500석 완비)**

- ◆ 홀 : 연인, 친구, 가족(2인석, 4인석, 6인석)
- ◆ 소모임(룸) : 직장회식, 계모임(9인석, 12인석, 24인석, 32인석)
- ◆ 대모임(룸) : 돌잔치, 칠순연, 피로연, 세미나(52인석, 92인석, 150인석)

아이부터 어른까지 3대가 만족하는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고객님의 소중한 추억과 맛있는 행복을 약속합니다.

평일	영업 시간	성인 (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 (초등학생)	미취학어린이 (5세-7세)	토·일 공휴일	영업 시간	성인 (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 (초등학생)	미취학어린이 (5세-7세)
LUNCH	11:30-15:00	22,000원	12,000원	8,000원	LUNCH	11:30-15:00	27,000원	15,000원	10,000원
DINNER	16:00-22:00	27,000원	15,000원	10,000원	DINNER	16:00-22:00	31,000원	18,000원	12,000원

★ 어린이 요금은 의료보험증 등을 지참하시어 할인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약문의 062)671-1199**  
 유스퀘어 터미널 2층 CGV 옆

**전복구이 전문점 전복장터**

전복장터를 찾아주시는 고객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청정해역 완도바다에서 직접 양식장을 운영하여 매일 싱싱한 전복을 고객님께 올릴 수 있음은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고객님 한분한분이 최상의 만족을 느낄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 양식장 직영 도·소매
- | 할전복 전국택배 가능합니다.
- | 모든 메뉴 포장 됩니다.
- | 각종모임 환영, 룸 9실, 대형주차장 완비

**전복장터 | 예약문의 062-576-860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367-12